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安 晴 緒*

目 次

- I. 研究의 목적, 方法, 범위
- II. 1. 소득분배와 經濟成長
 - 1. 理論的 배경
 - 2. 모형의 設定
 - 3. 分析結果와 해석
 - (1) 저축경로를 通한 分析
 - (2) 社會安定化 경로를 通한 분석
- III. 要約과 결론

I. 研究의 목적 方法, 범위

I. 이 論文은 開途國에 있어서 比較的 平등한 所得分配가 經濟成長에 유리했던가의 與否를 비교, 분석하여 確認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間接的으로는 상대소득 가설과 Kuznets의 U字假說의 타당성 與否를 개도국에서 檢證하는 것도 이 論文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所得分配는 저축증감을 通하여 成長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준다. 이 境遇에 重要한 것은 絶對所得水準이다. 지나치게 낮은 所得水準, 즉 절대빈곤의 상태에서는 比較的 공평한 所得分配가 저축증대를 誘導하기를 期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所得水準이 절대빈곤의 狀態를 벗어남에 따라 比較的 공평한 所得分配가 저축증대를 誘導하기를 期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¹⁾

* 本 研究所 研究員,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助教授. (理論經濟 專攻)

1)拙稿：“所得分配와 貯蓄”，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22輯，檀國大學校，1988 pp.245-295.

産業研究

소득분배는 社會安定化 경로를 通하여 成長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前者가 소득분배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間接效果라면 後者는 소득분배가 成長에 미치는 直接效果이다.

社會安定은 정치적 안정과 政治的民主化를 포함하는 廣範圍한 개념이다. 그러나 社會安定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그 어느것 보다도 所得分配가 깊은 關聯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安定과 민주화에 있어서 重要한 것은 中產層과 중간계급의 比重과 역할이라는 것을 6·29 宣言에서 體驗한 바와 같다.

따라서 成長模型에 소득분배를 表示하는 지표를 어떻게 包含시키느냐의 問題로 초점이 모아진다. 具體的으로는 成長函數에 지니계수나 十分位指數 등을 包含시키는 것이 問題解結의 실마리를 提供할 수 있을 것이다.

分析의 기법은 計量的 기법을 쓴다. 이러한 側面에서 볼 때 이 論文은 아무리 좋게 본다해도 斷編의이라는 評을 들을 수 밖에 없다. 社會現象이나 經濟現象은 너무도 複雜하게 聯關되어 있어 計量的 기법으로 把握하기에는 限界가 있을 수 밖에 없다. 構造分析·推勢分析·計量分析·政治經濟分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비로소 한편의 論文이 서투른 水準에서나마 體係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論文은 추세분석과 計量分析으로 構成되어 있었으나 紙面 형편상 推勢分析은 심지 않는다. 研究範圍도 원래의 内容보다는大幅 축소시켰다. 原來의 내용 목次는 다음과 같다.

目 次

- I. 研究의 목적·方法, 범위
- II. 国内저축과 所得分配
 1. 模型의 설정
 2. 分析의 결과와 解釋
- III. 외채와 所得分配
 1. 海外貯蓄과 소득분배
 - (1) 2단계 最小自乘法에 의한 接近
 - 1) 모형의 設定
 - 2) 推定結果와 해석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2) 측약형 推定方法에 의한 接近

2. 所得分配와 외채잔고

(1) 模型의 설정

(2) 분석의 結果와 해석

3. 신용평가와 債務調整

IV. 所得分配와 경제성장

1. 이론적 背景

2. 模型의 설정

3. 分析의 結果와 解釋

(1) 貯蓄經路를 통한 分析

(2) 社會安定化經路를 통한 分析

V. 結論과 전망

(1) 연구결과와 問題點

(2) 分配와 성장의 調和 가능성

研究對象國은 조건이 相異한 한국·대만·브라질·멕시코로 限定했다. 韓國은 1910년부터 日本의 식민지배를 받았으며 1945년 以後부터는 美國의 영향권 안에 있다. 政權交替가 불연속적이었으며 軍事文化가 約 30년동안支配했다. 人口密度가 높아 420名 / km²이며 인구증가율은 約 1.5%다. 製造業에서부터 產業化를 시작하였으며 不均衡成長 방식을 採擇했다. 加工貿易·부품조립·輸入代替·적극적 수출등 다양한 政策을 구사했으며, 이러한 過程에서 산업구조도 輕工業→重化學工業→電子工業→尖端產業 등으로 移行하였다. 大企業 중심의 政策을 戛고, 成長을 分배보다 優先하는 정책을 썼다.

臺灣도 한국과 비슷한 政治·社會的 변화를 經驗했으나 政治交替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點이 特徵的이다. 臺灣의 인구는 韓國人口의 半(약2千萬) 정도이며 人口密度는 520名 / km²이다. 氣候條件 때문에 1年에 삼모작까지 可能하여 農業을 기반으로 產業化를 하였으며 成長과 分배를 同時に 추구했다. 產業間·產業內 균형발전이 特色이며 중소기업 中心으로 成長하여 중화학공업이 아직은 脆弱하다.²⁾

2) 朴態緒, “臺灣의 安定成長政策 國際經濟, 研究院, 1980.

盧道陽, “타이완” 東亞百科事典, 27券, 1988, pp.607~608

產業研究

韓國과 臺灣은 유교문화의 傳統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成長에 긍정적으로 作用하는 側面이 있다.³⁾ 兩國은 정치, 경제적으로 美國의 영향권에 있지만 開發過程에서는 日本의 자본과 技術이 많이 導入되었다. 韓國과 臺灣은 다같이 積極的 수출전략을 썼으며 所謂 수출주도형 經濟다.

Brazil은 인구가 1億 44萬이고 인구밀도는 16.6名 / km²이며 人口增加率은 약 2.2%이다. 人種構成은 백인 62%, 白黑混血(Mulato) 26%, 黑人 11%다. 포르투갈에서 1822年에 獨立하였고, 1964年 軍事政權이 들어섰으나 1985年 民政이 출범했다. 1人當 GDP는 '87年 2,300달라程度이고, 이것은 1980年 水準에 비슷한 數值이다.⁴⁾

Mexico의 人口는 8千2百萬 程度이며 인구밀도는 41名 / km²이며 人口增加率은 4.4%이다. 人種構成은 백인 15%, 白人과 인디오의 混血(Mestizos) 55%, 인디오 29%이다. 스페인의 支配下에서 1882年 獨립했고 1910年에는 獨裁政治에서 벗어났다. 1人當 GDP는 1987年에 1千6百 달라 程度이나, 이것은 1980年 約 2千5百 달라 水準에 미달하는 것이다.⁵⁾

Brazil과 Mexico는 카톨릭 信者가 96%이며 1822年 獨立 이래 유럽세력의 進出을 견제하기 위해 1823年 Monroe Doctrine이 선포된 후 美國의 영향력이 政治, 經濟的으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Brazil에 있어서는 美國과 유럽의 經濟進出이 半半이며 Mexico는 美國과 접경하여 美國의 경제진출이 壓度의이다. Brazil은 輸出代替產業을 육성시켰으며 Mexico는 部品組立產業이 발달하였다. Brazil은 커피 輸出國이라면 Mexico는 석유수출국이다. 兩國이 모두 地下資源이 풍부하고 從屬理論과 해방신학의 根源地이다.

所得分配에 관한 資料는 한국과 대만의 경우는 金大模, 安國臣의 연구와 「Directorate-General of Budget」의 지니계수의 時係列을 이용한다.⁶⁾

3) 金一坤 : 儒教文化圈의 秩序와 經濟, 韓國經濟新聞社, 1967.

4) 徐東赫, 브라질, 中南美國別便覽 05 產業研究院, 1988.

經濟企劃院調查統計局, 主要海外 經濟指標, 1988.

5) 李文鳳 : 멕시코, 中南美國別 便覽 17, 產業研究院, 1988.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 主要海外經濟指標, 1988.

6) 金大模 · 安國臣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中央文學校, 1987.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Brazil과 Mexico의 경우는 「José Märcis Camargo의 推計方式에 따라 發表된 자료와 關聯變數를 이용하여 再推計하여 使用하였다.⁷⁾

II. 所得分配와 經濟成長

1. 理論的 背景

一般的으로 產出量과 生産요소는 다음과 같은 函數式으로 表現된다. $Y=f(L,K) Y=AL^\alpha K^\beta$
自然代數를 취하고 時間(t)에 관해 微分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 Y &= \ln A + \ln L^\alpha + \ln K^\beta \\ \frac{d\ln Y}{dY} \frac{dY}{dt} &= \frac{d\ln A}{dA} \frac{dA}{dt} + \frac{d\ln L^\alpha}{dL} \frac{dL}{dt} + \frac{d\ln K^\beta}{dK} \frac{dK}{dt} \\ \frac{1}{Y} \frac{dY}{dt} &= \frac{1}{A} \frac{dA}{dt} + \frac{1}{L} \frac{dL^\alpha}{dt} + \frac{1}{K} \frac{dK^\beta}{dt} \\ \hat{Y} &= \hat{A} + 2\hat{L} + \beta\hat{K} \end{aligned} \tag{式 II-1}$$

여기서,

\hat{A} 능율증가율; 기술향상을

\hat{K} 자본증가율

\hat{L} 노동증가율

만약 勞動이 풍부하고 資本이 부족한 經濟를 생각하면, $Y=f(K) Y=AK^\beta$ 의 生產函數를 생각
할 수 있다. 自然代數를 취하고 時間(t)에 關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Y &= AK^\beta \\ \ln Y &= \ln A + \ln K^\beta \\ \frac{d\ln Y}{dY} \frac{dY}{dt} &= \frac{d\ln A}{dA} \frac{dA}{dt} + \frac{d\ln K^\beta}{dK} \frac{dK}{dt} \end{aligned}$$

7) 이만우—한국과 대만의 產業構造와 所得分配, 產業研究院, 1988.

產業研究

$$\frac{1}{Y} \frac{dY}{dt} = \frac{1}{A} \frac{dA}{dt} + \beta \frac{1}{K} \frac{dK}{dt} \cdot \dot{Y} = \dot{A} + \alpha \dot{K}$$

$$\dot{Y} = \dot{A} + \beta \frac{1}{K} \frac{dK}{dt}$$

여기서, $v = \frac{K_t}{Y_t}$ 와 $\frac{I_t}{Y_t} = \frac{S_t}{Y_t}$ 를 가정하자.

$$\dot{Y} = \dot{A} + \beta \frac{1}{v Y_t} \frac{dK}{dt}$$

$$\dot{Y} = \dot{A} + \frac{\beta}{v} \cdot \frac{1}{Y_t} \cdot \frac{dK}{dt}$$

$$\frac{dK}{dt} = I_t = S_t \text{ 를 假定하면}$$

$$\dot{Y} = \dot{A} + \frac{\beta}{v} \frac{I_t}{Y_t}$$

$$\dot{Y} = \dot{A} + \frac{\beta}{v} \frac{S_t}{Y_t} \quad \dots \dots \quad (\text{式 II - 2})$$

$$\dot{Y} = \dot{A} + \frac{\beta}{v} \frac{S_t}{Y_t} \quad (\text{式 II - 2})$$

先進國에서는 政治 · 經濟體制가 비슷하므로 \dot{A} 는 體化되지 않은 技術進普率(Disembodied Technology)로 해석하면 되고 開途國의 경우는 資本에 體化되지 않은 기술 진보율이 微微하므로 政治 · 經濟體制와 그것의 効率性向上으로 해석할 수 있다.

先進國의 자본에 體化되지 않은 기술진보율이 같고 開途國의 정치경제체제와 그 運營方法

이 같다면 $\dot{Y} = \frac{\beta}{v} \frac{S_t}{Y_t} \cdot \dot{Y} \frac{v}{\beta} = \frac{S_t}{Y_t} \cdot \dot{Y} \frac{v}{\beta} = S \cdot \dot{Y} = G \cdot \frac{v}{\beta} = C_p$ 라고 생각하면

$$G C_p = S \cdot G = \frac{S}{C_p} \quad (\text{但 } \dot{Y} = G - \text{ 경제성장율})$$

$$(C_p \text{ 現實(實際)限界資本係數 } \frac{\Delta K}{\Delta Y} = \frac{\Delta I}{\Delta Y} \text{ } S = \text{ 평균저축율}(\frac{S_t}{Y_t}))$$

Harrod는 이와 類似한 방법으로 成長模型을 정립했다. 따라서 Harrod의 成長模型 展開過程을 그대로 옮겨 보자.⁸⁾

8) R. F Harrod, An Essay in Dydynamic Theory in Readings in The Modern Theory of Economic Thory, by ed. Joseph E. Stiglitz, and Hirogumi Uzawa, MIT, Press, pp.14-33.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S\chi_0 = C_p(\chi_1 - \chi_0), \frac{S}{C_p} = \frac{\chi_1 - \chi}{\chi_0} = G, G = \frac{S}{C_p},$$

$C_p = C$ 이면, $G = G_n$

(式 II-3)

여기서,

C_p : 현실(실제)限界資本係數 ($\frac{\Delta K}{\Delta Y} = \frac{I}{\Delta Y}$)

C : 기술적 조건 신용상태 이자율등에 의해 요구되는 限界资本係數 ($\frac{\Delta K}{\Delta Y} = \frac{I}{AY}$)

G : 實際 產出量 증가율 ($\frac{1}{Y} \frac{dY}{dt} = \frac{dY}{Y}$); 현실 경제성장을

G_w : 保證經濟成長率(適正經濟成長率 : 기업가가 만족하는 경제 성장률)

$\chi_0(Y_t)$: 현재 산출량(소득), 本期의 산출량

$\chi_1(Y_{t+1})$: 未来 산출량; 次期의 산출량

S : 평균 저축율

여기에서 其他變數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S\chi_0 = C_p(\chi_1 - \chi_0) + k\chi_0 + K$$

$$S\chi_0 - k\chi_0 - K = C_p(\chi_1 - \chi_0)$$

$$S - k - \frac{K}{\chi_0} = C_p \frac{\chi_1 - \chi_0}{\chi_0}$$

$$S \leftarrow k - \frac{K}{\chi} = C_p G S - k - \frac{K}{\chi} = C_p G_w (C = C_p \text{인 경우})$$

$$G = \frac{S - k - \chi}{C_2}$$

k 는 현재소득과 關聯해서 변하고 현재소득의 成長率과는 구별되는 長期的 期待인데 이것은 現在의 번영 상태나 困難狀態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企業家의 입장에서 보면 製品의 販賣와 관련된 期待이고, 大量販賣에 대한 기대는 所得分配와 관련 된 것이다. 따라서 k 의 구체적인 指標로써 소득 평등정도(또는 不平等 程度)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나 十分位指數로 대체해도 無理 없을 것이다. (但 計量模型에서는 지니계수를 G_c 로 표기하고 十分位指를 K 로 표기하니 혼동 없기 바란다).

K는 현재所得 및 현재 성장을과無關한 것으로先進國의 입장에서는기술진보율(A)로
해석하고開途國의 입장에서는政治經濟體制의 효율성과 안정성으로解釋할 수 있을 것이다.

產業研究

만약 輸出入을 모형에 넣는다면 模型은 다음과 같이 變한다.

$$S\chi_0 + i\chi_0 - k\chi_0 - K - E = C_p(\chi_1 - \chi_0)$$

$$S + i - k - \frac{K}{\chi} - \frac{E}{\chi_0} = C_p \frac{\chi_1 - \chi_0}{\chi_0}$$

$$S + i - k - \frac{K}{\chi} - \frac{E}{\chi} = C_p G$$

$$S + i - k - \frac{K}{\chi} - \frac{E}{\chi} = CG_w \quad (C_p = C인 경우)$$

다시 옮겨 써 보자.

$$\begin{aligned} GC &= S + i - k - \frac{K}{\chi_0} - \frac{E}{\chi} \\ G &= \frac{S + i - k - \frac{K}{\chi} - \frac{E}{\chi}}{C_p} = \frac{S + i - \frac{K}{\chi} - k - \frac{E}{\chi}}{C_p} \end{aligned} \quad (\text{式 II-5})$$

$$\left[\begin{array}{l} \text{여기서} \\ E: \text{輸出} \\ i: \text{수입성향 } \frac{M}{\chi_0} = \frac{\Delta M}{\Delta K_0} \\ M = i\chi_0 \quad M: \text{수입} \end{array} \right]$$

$$G = \frac{S + i - \frac{E}{\chi_0}}{C_p} \quad \text{까지만 가지고 정리해 보자.}$$

$$GC_p = S + i - \frac{E}{\chi}$$

$$= S - (i + \frac{E}{\chi})$$

$GC_p = S - b$ 또는 $G_w C_r = S - b$ 가 그러나 開途國의 입장에서는 $GC_p = S + b$ 또는 $G_w C_r = S + b$ 로 될 것이다.⁹⁾

따라서 Harrod의 成長模型은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G = f(S, F_s, G_c, A) \quad (\text{式 II-6})$$

$$G = \lambda_0 + \lambda_1 F_S + \lambda_2 F_{S_s} + \lambda_3 G_c + V_t$$

$$\left[\begin{array}{ll} S: \text{국내저축율} & G_c: \text{지니계수} \quad V_t: \text{오차항} \\ F_s: \text{해외저축율} & A: \text{능률계수} \quad K: \text{十分位指數} \end{array} \right]$$

9) 李昌烈, 國際經濟學 法文社, 1972, pp.187-188.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G = \lambda_0 + \lambda_1 S + \lambda_2 F_s + \lambda_3 K + V_t$$

그런데 開途國에서는 수출이 特別한 의미를 갖는다. 輸出은 수요증가, 또는 외자도입(輸出과 輸入의 차이)로써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國際競爭力의 시험에 합격하는 의미와 그것을 통한 技求向上, 品質向上, 價格引下, 海外市場情報獲得 등도 중요하지만 企業家와 국민에게 自信感을 갖게 하고 政府政策에 상당한 정도의 信賴感을 갖게 한다. 따라서 開途國에서는 輸出을 獨립된 要素로써 넣을 수도 있다.¹⁰⁾

$$G = f(S, F_s, G_c, E) \quad (\text{式 II-7})$$

$$G = \lambda_0 + \lambda_1 S + \lambda_2 F_s + \lambda_3 G_c + \lambda_4 E + V_t$$

$$G = \lambda_0 + \lambda_1 S + \lambda_2 F_s + \lambda_3 F_s + \lambda_3 K + \lambda_4 E + V_t$$

이제 전통적 生產函數에다가 지금까지 論議한 Harrod型 성장모형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Y = f(L, K) \quad Y = AL^\alpha K^\beta \quad \dot{Y} = \dot{A} + \alpha L + \beta \dot{K}$$

$$Y (= G) = \lambda_0 + \lambda_1 L + \lambda_2 S + \lambda_3 F_s + \lambda_4 G_c + \lambda_5 E + V_t$$

만약 L을 경제활동 참가율(고용증가율의 시계열 통계가 부족하므로)L로 代置한다면

$$G = \lambda_0 + \lambda_1 \bar{L} + \lambda_2 S + \lambda_3 F_s + \lambda_4 G_c + \lambda_5 E + V_t$$

$$\text{또는 } G = \lambda_0 + \lambda_1 \bar{L} + \lambda_2 S + \lambda_3 F_s + \lambda_4 K + \lambda_5 E + V_t$$

[다음에서는 증가율을 표시하^는 표기하지 않기로 한다.]

지금까지 살펴 보았듯이 그 동안 成長에 관한 理論的 論議도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가지 成長模型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複雜한 것은 피하고一般的인 生産 함수와 Harrod의 成長模型을 접목시키되, 開途國 사정을考慮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Y = f(L, K) \rightarrow Y = AL^\alpha K^\beta$ 의 生산함수와 $G \cdot C = S$ 의 Harrod型 成長model을 接木 시키되 所得分配와 수출을 模型에 포함 시켰다. 따라서 經濟成長率은 다음과 같은 函數 形態를 갖게 될 것이다.

10) 外導導入을 넣고, 또 다시 輸出을 模型에 넣는다는 것은 理論 一貫性이나 計量經濟의 다중공생성의 문제가 있다.

$$G = f(\bar{L}, S, F_s, EDI, E) \quad (\text{式II-8})$$

G : 경제성장을 S : 국내저축을 FS : 해외저축율
 EDI : 소득분배 구체적으로는 지니계수(G_c)나 十分位指數(K)
 E : 수출

이와 같은 函數의 성립은 所得分配가 경제성장을에 미치는 影響의 방향과 大·小를 파악하기 為한 것이다.

2. 模型의 設定

앞서의 論議를 종합하면 一國의 지속적인 經濟成長은 풍부 良質의 노동력, 원활한 投資財源, 보다 잘살고자 하는 國民的 合議등 총체적 변수의 結合結果이다. 그런데 所得의 分配構造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効果는 여러가지 側面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從來의 研究를 종합해 보면 所得分配構造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經路를 대개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1) 첫째 商品構成의 变動요인으로서, 둘째 貯蓄의 결정요인으로서 및 社會經濟的 안정화요인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밖에도 더 많은 經路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영향의 파급경로도 일의적이거나 單線의 이기 보다는 雙方의이고 복합적이다. 따라서 所得分配가 經濟成長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研究가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임도 밝혀두고자 한다.

그런데 本 研究에서는 試論的 성격을 갖고 所得分配構造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貯蓄經路를 통한 측면과 經濟安定化要因으로서의 側面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所得分配가 저축경로를 통하여 經濟成長에 미치는 경우에 대해 整理해 보자.

成長을 위한 필수요소인 投資財源의 調達方法에는 国内재원과 海外財源의 조달이 있다.

- 11) Papanek, G.F. : "Aid, Foreign Private Investment, Savings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Jan-Feb 1973, pp.120-130.
- Cheney, H.B. and A. Strout :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6.
- Weisskopf, T.E. :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Inflow on Domestic savings of International Economics 2, No.1, February 1972, pp.25-38.
- Stoneman, C. :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3, No.1, January 1975, pp.11-26.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國內財源의 조달방법으로는 貯蓄이 투자로 轉換되는 방법, 政府의 財政政策에 의한 재원조달 방법, 그리고 通貨量膨脹에 입각한 政府의 「인플레」적 金融이 있다.

또한 해외재원의 動員方法으로는 무상원조, 借款 그리고 直接投資의 유치 등이 있다.

따라서 所得分配構造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効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所得分配構造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이 貯蓄이 投資財源으로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効果를 파악하는 우회적 方法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같은 効果를 회귀분석에 의하여 分析하고자 하는 경우, 이 상황은 二段階最小自乘法의 상황이다. 즉 앞서의 理論的 論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經濟成長에 관한 함수를 $G = f(\bar{L}, S, F_s, E)$ 로 하는 경우 S 와 F_s 는 所得分配構造의 영향에 따른 推定된 \hat{S} , \hat{F}_s 로 대치되어야 한다.

$$G = f(\bar{L}, \hat{S}, \hat{F}_s, E) \quad (\text{式 II-9})$$

$$S = g(R, P, Y, F_s, G_c \text{ 또는 } K) \quad (\text{式 II-10})$$

$$F_s = h(R, S, G) \quad (\text{式 II-11})$$

또는

$$G_t = \alpha_0 + \alpha_1 \bar{L}_t + \alpha_2 \hat{S}_t + \alpha_3 \hat{F}_{s,t} + \alpha_4 E_t + U_t^1$$

$$S_t = \beta_0 + \beta_1 R_t + \beta_2 P_t + \beta_3 Y_t + \beta_4 F_{s,t} + \beta_5 G_{c,t} \text{ (또는 } K_t\text{)} + U_t^2$$

여기서, G_t : 實質經濟成長率

\bar{L}_t : 경제활동참가율

\hat{S}_t : 推定된 國內貯蓄率

$F_{s,t}$: 海外貯蓄率

E_t : 輸出變動率

R_t : 實質公正割引率

P_t : 消費者物價變動率

Y_t : 1인당 實質所得

$G_{c,t}$: 지니계수

K_t : 10분위지수

U_t^1 : 교란항

產業研究

經濟安定化要因으로서 경제성장에 미치는效果는 다음과 같이要約될 수 있다. 즉所得이 불공평하게配分되고 특히 이러한不公平한所得分配에 대한 불만도가 높을 수록 사회전체적인 갈등과 대립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근로의욕이 낮아지고未來에 대한期待의 감퇴로貯蓄도 감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저항도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成長의制約要因으로所得의不平等分配構造가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分析하기 위한模型의 정립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대로所得分配構造의變動에 따라 나타나는諸狀況과 이에 따른成長에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複雜한model의 정립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model의定立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 왜냐하면所得分配構造에 따라 영향을 받는變數의 도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크기를 파악하기란 더욱 난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現實的인狀況을 감안하여 매우 강한假定을 내포하기는 하지만本研究에서는 다음과 같은回歸model을 통해經濟安定化要因으로서 소득분배구조가經濟成長에 미치는效果를 파악하고자 한다.

$$G = f(\bar{L}, \hat{S}, \hat{F}_s, E, G_c \text{ 또는 } K) \quad (\text{式 II-12})$$

또는

$$G_t = \xi_1 \bar{L}_t + \xi_2 \hat{S}_s + \xi_3 \hat{F}_{st} + \xi_4 E + \xi_5 G_{ct} \text{ (또는 } K_t) + U'_t$$

3. 분석의結果와 해석

(1) 貯蓄經路를 통한分析

所得分配構造와 국내저축 및所得分配構造와 해외저축간의關係를 바탕으로所得分配構造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分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分析對象國 전체를統合分析하여 다음의結果를 얻었다.¹²⁾

12) 統合分析의 타당성 전체를 위한 Chow檢定의 결과는 앞의 II와 III을 참조.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 지니계수를 利用한 경우

$$S_t^T = 30.169 - 0.078R_t - 0.047P_t - 0.019Y_t - 0.702F_{st} - 9.403G_{ct}$$

$$\left(\frac{\text{t歟}}{\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9.674}{0.000} \right) \left(\frac{-2.190}{0.032} \right) \left(\frac{-2.218}{0.030} \right) \left(\frac{-1.675}{0.098} \right) \left(\frac{-7.797}{0.000} \right) \left(\frac{-3.262}{0.002} \right)$$

$R^2 : 0.53(0.50)$, D-W : 0.67, F: 17.6, $\theta : 1392.0$

$$FS_t = 27.927 + 0.025R_t - 1.114\hat{S}_t^{Gc} + 0.02G_t$$

$$\left(\frac{\text{t歟}}{\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7.652}{0.000} \right) \left(\frac{2.549}{0.013} \right) \left(\frac{-17.951}{0.000} \right) \left(\frac{0.306}{0.761} \right)$$

$R^2 : 0.80(0.79)$, D-W: 1.09, F: 107.6, $\theta : 475.7$

$$G_t^T = -60.765 + 0.021L_t + 2.624\hat{S}_t^{Gc} + 2.351F_{st} + 0.072E_t$$

$$\left(\frac{\text{t歟}}{\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4.175}{0.000} \right) \left(\frac{0.313}{0.755} \right) \left(\frac{4.154}{0.000} \right) \left(\frac{4.166}{0.000} \right) \left(\frac{3.278}{0.002} \right)$$

$R^2 : 0.38(0.35)$, D-W: 2.13 , F: 11.9, $\theta : 1041.2$

따라서 소득분배구조의 經濟成長에 대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eft[\frac{\partial S}{\partial G_c}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G_c} < 0 \right]$$

- 10분위지수를 利用한 경우

$$S_t^T = 21.807 - 0.070R_t - 0.045P_t - 0.015Y_t - 0.668F_{st} + 9.131K_t$$

$$\left(\frac{\text{t歟}}{\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2.141}{0.000} \right) \left(\frac{-1.905}{0.061} \right) \left(\frac{-2.047}{0.045} \right) \left(\frac{-1.248}{0.216} \right) \left(\frac{-7.215}{0.000} \right) \left(\frac{2.189}{0.032} \right)$$

$R^2 : 0.50(0.47)$, D-W: 0.60, F: 15.4, $\theta : 1490.3$

$$FS_t = 29.755 + 0.027R_t - 1.189\hat{S}_t^k + 0.014G_t$$

$$\left(\frac{\text{t歟}}{\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21.414}{0.000} \right) \left(\frac{3.204}{0.002} \right) \left(\frac{-21.755}{0.000} \right) \left(\frac{0.249}{0.804} \right)$$

$R^2 : 0.86(0.85)$, D-W: 1.32, F : 158.0, $\theta : 345.8$

産業研究

$$G_t^T = -56.611 + 0.031\bar{L}_t + 2.448\hat{S}_t^K + 2.039\hat{F}_s^K + 0.075E_t$$

$$\left(\frac{\text{t}}{\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3.799}{0.000} \right) \left(\frac{0.454}{0.651} \right) \left(\frac{3.789}{0.000} \right) \left(\frac{3.727}{0.000} \right) \left(\frac{3.367}{0.001} \right)$$

$$R^2 : 0.36(0.32), D-W : 2.13, F : 10.95, \theta : 1075.1$$

따라서所得分配構造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eft[\frac{\partial S}{\partial K}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K} > 0 \right]$$

즉, 전체적인 統合分析의 結果 소득분배가 공평할 수록 國內貯蓄이 增大되고 따라서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한국·대만의 分析 結果를 살펴보자.

- 지니계수를 利用한 경우

$$\begin{aligned} \hat{S}_t^{Tw} &= 53.64 - 0.691R_t - 0.432P_t + 0.220Y_t - 0.45F_{st} - 66.66G_{ct} \\ &\quad \left(\frac{\text{t}}{\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7.018}{0.000} \right) \left(\frac{-6.354}{0.000} \right) \left(\frac{-3.242}{0.003} \right) \left(\frac{1.764}{0.086} \right) \left(\frac{-3.086}{0.004} \right) \left(\frac{-3.269}{0.002} \right) \end{aligned}$$

$$R^2 : 0.83(0.81), D-W : 1.16, F : 35.8, \theta : 362.5$$

$$\begin{aligned} \hat{F}_{st}^{Tw} &= 26.115 - 0.431R_t - 1.009\hat{S}_t^{Gc} + 0.257G_t \\ &\quad \left(\frac{\text{t}}{\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9.525}{0.000} \right) \left(\frac{-11.266}{0.000} \right) \left(\frac{-20.228}{0.000} \right) \left(\frac{2.844}{0.007} \right) \end{aligned}$$

$$R^2 : 0.92(0.92), D-W : 1.34, F : 147.7, \theta : 146.4$$

$$\begin{aligned} \hat{G}_t^{Tw} &= 32.93 - 0.440\bar{L}_t - 0.068\hat{S}_t^{Gc} - 0.242\hat{F}_{st}^{Gc} + 0.114E_t \\ &\quad \left(\frac{\text{t}}{\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0.870}{0.390} \right) \left(\frac{-0.631}{0.532} \right) \left(\frac{-0.421}{0.676} \right) \left(\frac{-1.594}{0.119} \right) \left(\frac{4.182}{0.000} \right) \end{aligned}$$

$$R^2 : 0.38(0.31), D-W : 1.87, F : 5.64, \theta : 382.98$$

- 10분위지수를 利用한 경우

$$\begin{aligned} \hat{S}_t^{Tw} &= 15.14 - 0.69R_t - 0.435P_t + 0.221Y_t - 0.458F_{st} + 33.036K_t \\ &\quad \left(\frac{\text{t}}{\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3.126}{0.003} \right) \left(\frac{-6.217}{0.000} \right) \left(\frac{-3.174}{0.003} \right) \left(\frac{1.744}{0.090} \right) \left(\frac{-3.045}{0.004} \right) \left(\frac{3.059}{0.004} \right) \end{aligned}$$

$$R^2 : 0.83(0.83), D-W : 1.12, F : 34.5, \theta : 373.1$$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begin{aligned} \hat{F}_{S,t}^{TW} &= 26.28 - 0.431R_t - 0.105\hat{S}_t^K + 0.255G_t \\ &\quad \left(\frac{\text{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20.279}{0.000} \right) \left(\frac{-11.685}{0.000} \right) \left(\frac{-21.002}{0.000} \right) \left(\frac{2.923}{0.006} \right) \end{aligned}$$

$$\begin{aligned} \hat{G}_t^{TW} &= 32.003 - 0.421\bar{L}_t - 0.744\hat{S}_t^K - 0.242\hat{F}_{S,t} + 0.113E_t \\ &\quad \left(\frac{\text{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0.844}{0.404} \right) \left(\frac{-0.602}{0.551} \right) \left(\frac{-0.459}{0.649} \right) \left(\frac{-1.594}{0.119} \right) \left(\frac{4.146}{0.000} \right) \end{aligned}$$

$$R^2 : 0.38(0.31), D-W : 1.88, F : 5.6, \theta : 385.1$$

따라서 통계적 檢定基準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는 있으나所得分配構造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韓國과 臺灣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eft[\frac{\partial S}{\partial GC}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GC} < 0 \right]$$

$$\left[\frac{\partial S}{\partial K}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K} > 0 \right]$$

또한 브라질·멕시코에 대한 分析의 결과를 살펴보자.

- 지니계수를 利用한 경우

$$\begin{aligned} \hat{S}_t^{BM} &= 18.3 - 0.033R_t - 0.044P_t - 0.010Y - 0.42F_{S,t} + 7.427GC_t \\ &\quad \left(\frac{\text{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5.106}{0.000} \right) \left(\frac{-1.074}{0.290} \right) \left(\frac{-2.345}{0.025} \right) \left(\frac{-1.144}{0.260} \right) \left(\frac{-2.402}{0.022} \right) \left(\frac{1.427}{1.162} \right) \end{aligned}$$

$$R^2 : 0.45(0.37), D-W : 0.71, F : 5.8, \theta : 366.0$$

$$\begin{aligned} \hat{F}_{S,t}^{BM} &= 28.1 + 0.027R_t - 1.188\hat{S}_t^{GC} - 0.025G_t \\ &\quad \left(\frac{\text{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0.54}{0.000} \right) \left(\frac{3.316}{0.002} \right) \left(\frac{-10.897}{0.000} \right) \left(\frac{-0.382}{0.704} \right) \end{aligned}$$

$$R^2 : 0.78(0.76), D-W : 1.14, F : 44.2, \theta : 112.1$$

$$\begin{aligned} \hat{G}_t^{BM} &= -46.0 + 0.734\bar{L}_t + 0.822\hat{S}_t^{GC} + 1.069\hat{F}_{S,t}^{GC} + 0.054E_t \\ &\quad \left(\frac{\text{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2.346}{0.024} \right) \left(\frac{2.011}{0.052} \right) \left(\frac{0.990}{0.328} \right) \left(\frac{1.446}{0.156} \right) \left(\frac{1.517}{0.138} \right) \end{aligned}$$

$$R^2 : 0.34(0.27), D-W : 1.55, F : 4.8, \theta : 619.5$$

産業研究

• 10분위지수를 利用한 경우

$$S_t^M = 25.19 - 0.031R_t - 0.043P_t - 0.011Y_t - 0.439F_{st} - 5.686K_t \\ \left(\frac{t\tex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6.563}{0.000} \right) \left(\frac{-1.016}{0.316} \right) \left(\frac{-2.279}{0.029} \right) \left(\frac{-1.262}{0.215} \right) \left(\frac{-2.556}{0.015} \right) \left(\frac{-1.331}{0.191} \right)$$

$R^2 : 0.44(0.37)$, D-W: 0.71, F: 5.7, $\theta : 368.6$

$$F_{st}^M = 28.4 + 0.028R_t + 1.199\hat{S}_t^K + 0.025G_t \\ \left(\frac{t\tex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10.773}{0.000} \right) \left(\frac{3.392}{0.002} \right) \left(\frac{-11.131}{0.000} \right) \left(\frac{-0.392}{0.698} \right)$$

$R^2 : 0.78(0.77)$, D-W: 1.19, F: 46.1, $\theta : 108.6$

$$G_t^M = -46.15 + 0.738\bar{L}_t + 0.821\hat{S}_t^K + 1.059\hat{F}_{st}^M + 0.054E_t \\ \left(\frac{t\text{값}}{\text{有意水準}} \right) \left(\frac{-2.351}{0.024} \right) \left(\frac{2.027}{1.050} \right) \left(\frac{0.986}{0.330} \right) \left(\frac{1.443}{0.157} \right) \left(\frac{1.511}{0.139} \right)$$

$R^2 : 0.34(0.27)$, D-W: 1.54, F: 4.8, $\theta : 619.6$

이러한 分析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所得分配構造와 경제성장간의 關係를 정리할 수 있다.

$$\left[\frac{\partial S}{\partial GC}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GC} > 0 \right]$$

$$\left[\frac{\partial S}{\partial K}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S} > 0 \right] \rightarrow \left[\frac{\partial G}{\partial K} < 0 \right]$$

t統計量의 값이 적어 信賴性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全體的으로는 所得分配의 공평화—저축증대—성장을 증가로 連結지어 생각할 수 있다. 특히 韓國과 臺灣은 이러한 所得分配의 공평화 → 저축증대 → 성장증대의 經路를 밟아 왔다. 그러나 Brazil과 Mexico의 경우는 反對의 경로 즉 所得不平等化 → 저축증대 → 성장증대의 經路를 밟아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所得分配의 공평화 → 저축증대 → 성장증대의 經路를 이어지는 것은 注目해야 할 現象이다. 왜냐하면 韓國 · 臺灣의 국토의 넓이와 自然資源은 Brazil · Mexico와 비교도 안된다. 더구나 人口도 韓國 · 臺灣이 Brazil · Mexico의 1/6 밖에 않되고 人口密度는 10倍 以上이다. 이 같은 狀況에서 韓國 · 臺灣의 효과가 Brazil · Mexico의 효과를 壓度 하며 全體的으로 貯蓄 소득평등화—저축증대—성장증가로 나타난 것은 깊은 省察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이제 構造模型은 利用하여 貯蓄經路를 통한 소득분배구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效果를 살펴보자. 먼저 구조방정식의 縮約型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G_t = \alpha_0 + \alpha_1 \bar{L}_t + \alpha_2 \hat{S}_t + \alpha_3 \hat{F}_t S_t + \alpha_4 E_t + U_t^1 \quad (\text{式 II-13})$$

$$\hat{S}_t = \beta_0 + \beta_1 R_t + \beta_2 P_t + \beta_3 Y_t + \beta_4 F_{St} + \beta_5 G_{Ct} + U_t^2$$

..... (式 II-14)

$$\hat{F}_{st} = \gamma_0 + \gamma_1 R_t + \gamma_2 S_t + \gamma_3 G_t \quad (\text{式 II-15})$$

(式 II-14와 15)를 (式 II-13)에 대입하자.¹³⁾

$$G = \alpha_0 + \alpha_1 \bar{L} + \alpha_2 \{\beta_0 + \beta_1 R + \beta_2 P + \beta_3 Y + \beta_4 F_S + \beta_5 G_C\} + \alpha_3 \{\gamma_0 + \gamma_1 R + \gamma_2 S + \gamma_3 G\} + \alpha_4 E \quad (\text{式 II-16})$$

이제 (式 II-16)에 있는 F_s 에 (式 II-15)를 대입하자

$$\begin{aligned}
 G &= \alpha_0 + \alpha_1 \bar{L} + \alpha_2 \{\beta_0 + \beta_1 R + \beta_2 P + \beta_3 Y + \beta_4 (\gamma_0 + \gamma_1 R \\
 &\quad + \gamma_2 S + \gamma_3 G) + \beta_5 G_C\} + \alpha_3 \{\gamma_0 + \gamma_1 R + \gamma_2 S + \gamma_3 G\} + \alpha_4 E \\
 &= \alpha_0 + \alpha_1 \bar{L} + \alpha_2 \beta + \alpha_2 \beta_1 R + \alpha_2 \beta_2 P + \beta_3 Y + \alpha_2 \beta_4 \gamma_0 \\
 &\quad + \alpha_2 \beta_4 \gamma_1 R + \alpha_2 \beta_4 \gamma_2 S + \alpha_2 \beta_4 \gamma_3 G + \alpha_2 \beta_5 G_C + \alpha_3 \gamma_0 + \alpha_3 \gamma_1 R + \alpha_3 \gamma_2 S + \alpha_3 \gamma_3 G + \alpha_4 E \\
 &= (\alpha_0 + \alpha_2 \beta_0 + \alpha_2 \beta_4 \gamma_0 + \alpha_3 \gamma_0) + \alpha_1 \bar{L} + (\alpha_2 \beta_1 + \alpha_2 \beta_4 \gamma_1) R + \alpha_2 \beta_2 P + \alpha_2 \beta_3 Y \\
 &\quad + (\alpha_2 \beta_4 \gamma_2 + \alpha_3 \gamma_2) S + \alpha_2 \beta_5 G_C + \alpha_4 E + (\alpha_2 \beta_4 \gamma_3 + \alpha_3 \gamma_3) G
 \end{aligned}$$

따라서

$$G = \left(\frac{1}{1 - \alpha_2\beta_4\gamma_3 - \alpha_3\gamma_3} \right) \{ (\alpha_0 + \alpha_2\beta_0 + \alpha_2\beta_4\gamma_0 + \alpha_3\gamma_0) + \alpha_1\bar{L} + (\alpha_2\beta_1 + \alpha_2\beta_4\gamma_1 + \alpha_3\gamma_1)R \right. \\ \left. + \alpha_2\beta_2P + \alpha_2\beta_3Y \right. \\ \left. + (\alpha_2\beta_4\gamma_2 + \alpha_3\gamma_2)S + \alpha_2\beta_5Gc + \alpha_4E \right\} \quad (式 II-17)$$

여기서 構造模型의 各 回歸係數 값은 <表IV-1>과 같다.

13) 편의상 하첨자 t와 교란함은 생략함.

產業研究

〈表II-1〉回歸分析의 結果(전체의 경우)

經濟成長模型 (Gt)			國內貯蓄 模型 (St)		海外貯蓄 模型 (Fst)	
			지시계수 이용	10분위지수 이용		
α_0	-1.886 (-0.547)	β_0	30.169 (19.674)	21.807 (12.141)	γ_0	15.044 (7.464)
α_1	0.129 (1.756)	β_1	-0.078 (-2.190)	-0.070 (-1.905)	γ_1	0.011 (0.636)
α_2	0.039 (0.371)	β_2	-0.047 (-2.176)	-0.045 (-2.047)		
α_3	-0.018 (-0.153)	β_3	-0.019 (-1.675)	-0.015 (-1.248)	γ_2	-0.591 (-7.706)
α_4	0.091 (3.803)	β_4	-0.702 (-7.797)	-0.668 (-7.215)		
		β_5	-9.405 (-3.261)	9.131 (2.189)	γ_3	0.093 (0.820)
R ²	0.24		0.53	0.49		0.43
D-W	1.89		0.67	0.60		0.69
F	6.4		17.6	15.4		19.85

단, ()는 t값임

그러므로 所得分配構造가 經濟成長에 미친 效果는 다음과 같이 計測된다.

$$\frac{\partial G}{\partial GC}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r_3 - \alpha_3 r_3} \right)^{GC} = -0.365$$

또한 10분위지수를 이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計測된다.

$$\frac{\partial G}{\partial K}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r_3 - \alpha_3 r_3} \right)^K = 0.355$$

즉 위의 分析結果로 볼 때 所得의 公平한 分配는 國內貯蓄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經濟成長에 유익함을 알 수 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韓國과 臺灣의 경우에 있어서 所得分配構造가 저축경로를 통해 經濟成長에 미치는 效果를 살펴보자.

經濟成長率 分配的 接近

〈表 II-2〉 回歸分析의 結果(한국·대만의 경우)

經濟成長模型 (Gt)		β_0	國內貯蓄模型 (St)		海外貯蓄模型 (Fst)	
			지시계수 이용	10분위지수 이용		
α_0	53.434 (1.360)	β_0	53.641 (7.018)	15.140 (3.126)	γ_0	21.825 (10.139)
α_1	-0.878 (-1.224)	β_1	-0.691 (-6.354)	-0.690 (-6.217)	γ_1	-0.384 (-5.871)
α_2	0.097 (0.781)	β_2	-0.432 (-3.242)	-0.435 (-3.174)		
α_3	-0.092 (-0.793)	β_3	-0.220 (1.764)	0.220 (1.744)	γ_2	-0.824 (-10.551)
α_4	0.114 (4.134)	β_4	-0.450 (-3.086)	-0.458 (-3.045)		
		β_5	-66.657 (-3.269)	33.036 (3.059)	γ_3	0.215 (1.372)
R ²	0.37		0.83	0.83		0.76
D-W	1.83		1.17	1.12		0.98
F	5.4		35.8	34.5		40.9

단, ()는 t값임

따라서 縮約型을 이용하여 所得分配構造가 경제성장에 미친 效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G}{\partial G_C}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r_3 - \alpha_3 r_3} \right)^{GC} = \frac{-6.466}{1.029} = -6.283$$

$$\frac{\partial G}{\partial K}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r_3 - \alpha_3 r_3} \right)^K = \frac{3.204}{1.029} = 3.113$$

또한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추계된다.

産業研究

〈表Ⅱ-3〉回歸分析의 結果(브라질·멕시코의 경우)

經濟成長模型 (Gt)			國內貯蓄模型 (St)		海外貯蓄模型 (Fst)	
			지시계수 이용	10분위지수 이용		
α_0	-40.324 (-2.676)	β_0	18.306 (5.106)	25.192 (16.563)	γ_0	11.070 (4.196)
α_1	0.933 (2.769)	β_1	-0.033 (-1.073)	-0.032 (-1.016)	γ_1	0.004 (0.324)
α_2	0.224 (1.079)	β_2	-0.044 (-2.345)	-0.043 (-2.280)		
α_3	-0.398 (1.655)	β_3	-0.010 (-1.144)	-0.011 (-1.262)	γ_2	-0.505 (-4.591)
α_4	0.033 (0.874)	β_4	-0.421 (-2.402)	-0.439 (-2.556)		
		β_5	7.427 (1.427)	-5.686 (-1.331)	γ_3	0.211 (2.092)
R ²	0.32		0.45	0.44		0.41
D-W	1.43		0.71	0.71		0.87
F	4.4		5.8	5.7		8.8

단, ()는 t값임

$$\frac{\partial G}{\partial G_C}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gamma_3 - \alpha_3 \gamma_3} \right)^{cc} = 1.776$$

$$\frac{\partial G}{\partial K} = \left(\frac{\alpha_2 \beta_5}{1 - \alpha_2 \beta_4 \gamma_3 - \alpha_3 \gamma_3} \right)^K = -1.360$$

分割分析의 결과 韓國·臺灣은 전체적으로 統合分析한 결과와 같이 所得分配의 公平화—저축증대—성장증대의 經路를 밟아 왔다는 것은 確認할 수 있다. 그러나 自然資源과 인구가 壓度的으로 많은 Brizil·Mexico는 所得分配의 불공평화—저축증대—성장증대의 經路를 밟아 왔다. 이것은 韓國·臺灣의 行路가 순탄할 것을豫告하고 Brazil·Mexico의 行路가 순탄치 못할것을豫告하는 것으로 解釋해도 좋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韓國·臺灣의 예가 Brazil·Mexico의 예보다 開途國의 귀감이 될 것이다.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2) 社會安定化要因으로서의 分析

우선 分析對象國의 전자료를 統合하여 回歸分析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¹⁴⁾

$$G_t^T = 27.58 - 0.313 \bar{L}_t + 0.061 S_t + 0.002 F_{St} + 0.093 E_t - 14.343 G_{Ct}$$

(t값) (2.677) (-1.926) (0.596) (0.496) (-3.017) (4.115)

$$R^2 = 0.32, D-W : 2.15, F : 7.45, \theta : 1131.2$$

$$G_t^T = 3.756 - 0.062 \bar{L}_t + 0.392 S_t + 0.008 F_{St} + 0.092 E_t + 10.910 K_t$$

(t값) (1.001) (-0.667) (0.388) (0.0698) (4.082) (3.082)

$$R^2 : 0.33, D-W : 2.1, F : 7.55, \theta : 1126.0$$

分析의 結果 두드러지는 특징은 國內貯蓄과 해외저축에 의한 經濟成長의 유발효과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所得分配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가 직접적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貯蓄이 投資財源으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불투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貯蓄의 投資財源으로의 전환에 있어 物價安定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그 効果가 분산된다는 이론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¹⁵⁾

또한 經濟活動參加率의 增大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열핏보아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 잘못된 結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理由에 근거하여 합당하지 못하다. 즉, 經濟成長을 설명하는 勞動의 변수는 그 量 및 質的 構造를 반영해야 하나 時系列資料의 가득이 곤란하여 經濟活動參加率을 使用하였다.

이에 따라 雇庸擴大에 못미치는 經濟活動人口의 증대는 失業과 연결되므로 經濟成長의 制約이 됨은 당연하다. 실제로 失業에 관한 資料의 가득이 가능하였던 韓國과 臺灣만의 분석 결과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¹⁶⁾

14) 물론 이와같은 결합분석을 위해서는 4개국에 대해

$F = \frac{\{\Theta_5 - (\Theta_1 + \Theta_2 + \Theta_3 + \Theta_4)\}/K}{(\Theta_1 + \Theta_2 + \Theta_3 + \Theta_4)/(\sum n_i - 4K)}$ 에 의해
chow 檢定을 해야한다.

검정의 결과 計算된 F값이 1.999로 나타나 統合이 가능함을 얻었다.

15) 產業研究院, 中南美의 經濟開發戰略, 1984.

16) $G_t = 2.292 - 0.061 U_t + 0.0355 S_t - 0.154 F_{St} + 0.116 E_t - 7.15 G_{Ct}$

($\frac{t\text{값}}{\text{有意水準}}$) ($\frac{6.102}{0.000}$) ($\frac{-1.092}{0.012}$) ($\frac{1.228}{0.006}$) ($\frac{-1.272}{0.211}$) ($\frac{4.085}{0.00}$) ($\frac{1.342}{0.121}$)

$R^2 : 0.36, D-W : 1.9 F : 13.8$

產業研究

또한 輸出의 경제성장에 대한 寄與도 통계적 有意水準을 만족시키면서 正(+)의 關係로 나타난다. 이는 分析對象國家들이 공통적으로 對外志向的 경제성장전략을 適用했음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다.

특히 本 研究의 주요관심사항인 所得分配構造의 경제성장에 대한 效果는 그 意味하는 바가 매우 크다. 즉, 分析의 結果 소득분배의 不公平은 성장의 制約要因으로 작용함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지니계수를 基準으로 하여 所得不平等度의 成長에 대한 彈力性은 -1.039나 되어 輸出의 彈力性보다 더 彈力的이다.¹⁷⁾

이제 그룹간 및 國別 分析結果를 살펴보자. 먼저 韓國·臺灣의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¹⁸⁾

$$G_t^{KT_w} = 55.492 - 1.019 \bar{L}_t + 0.131 S_t - 0.115 F_{st} + 0.115 E_t + 14.702 G_{ct}$$

(t값) (1.401) (-1.365) (0.986) (-0.949) (4.156) (0.741)

$$R^2 : 0.38, D-W : 1.92, F : 4.37, \theta : 383.5$$

$$G_t^{KT_w} = 68.406 - 1.076 \bar{L}_t + 0.144 S_t - 0.124 F_{st} + 0.117 E_t - 10.587 K_t$$

(t값) (1.638) (-1.452) (1.095) (-1.031) (4.234) (-1.046)

$$R^2 : 0.39, D-W : 1.95, F : 4.54, \theta : 377.9$$

또한 韓國과 臺灣의 각각에 대한 分析結果는 다음과 같다.

- 韓國의 경우

$$G_t^K = 80.25 - 1.313 \bar{L}_t + 0.344 S_t + 0.036 F_{st} - 0.0998 E + 19.8 G_{ct}$$

(t값) (1.623) (-1.455) (1.638) (0.113) (2.147) (-0.547)

$$R^2 : 0.38, D-W : 1.8, F : 1.86, \theta : 220.8$$

17) $\frac{\partial G/G}{\partial Gc/Gc} = \frac{\partial G}{\partial Gc} \cdot \frac{\bar{G}_c}{G} = (-14.343) \cdot \left(\frac{0.546}{7.537}\right) = -1.039$

$$\frac{\partial G/G}{\partial K/K} = \frac{\partial G}{\partial K} \cdot \frac{\bar{K}}{K} = (10.910) \cdot \left(\frac{0.358}{7.537}\right) = 0.518$$

$$\frac{\partial G/G}{\partial E/E} = \frac{\partial G}{\partial E} \cdot \frac{\bar{E}}{E} = (0.093) \cdot \left(\frac{22.541}{7.537}\right) = 0.273$$

$\begin{cases} \bar{G}_c = G_c \text{의 평균} \\ \bar{K} = K \text{의 평균} \\ \bar{E} = E \text{의 평균} \end{cases}$

18) 韓國·臺灣과 브라질·멕시코에 대한 chow 檢定의 檢定統計量은 각각 1.784와 1.936으로 統合分析이 가능하다.

$$G_t = 68.406 - 1.076 \bar{L}_t + 0.144 S_t - 0.124 F_{st} + 0.117 E_t - 10.587 K_t$$

(t값) (1.638) (-1.452) (1.095) (-1.031) (4.234) (-1.046)

$$R^2 : 0.39, D-W : 1.95, F : 4.54, \theta : 377.9$$

經濟成長에 관한 分配的 接近

$$G_t^k = 73.36 - 1.354 \bar{L}_t + 0.335 S_t + 0.039 F_{st} + 0.101 E_t + 4.688 K_t$$

(t欲) (1.417) (-1.490) (1.581) (0.124) (2.110) (0.241)

$$R^2 : 0.37, D-W : 1.84, F : 1.78, \theta : 224.3$$

- 臺灣의 경우

$$G_t^T = 48.62 - 0.327 \bar{L}_t - 0.491 S_t - 0.329 F_{st} + 0.196 E_t - 36.7 G_C$$

(0.304) (-0.112) (-1.295) (-2.184) (4.6596) (-0.540)

$$R^2 : 0.69, D-W : 1.42, F : 6.67, \theta : 79.1$$

$$G_t^T = 31.95 - 0.398 \bar{L}_t - 0.458 S_t - 0.324 F_{st} + 0.196 E_t + 15.449 K_t$$

(t欲) (0.194) (-0.136) (-1.207) (-2.127) (4.591) (0.438)

$$R^2 : 0.69, D-W : 1.4, F : 6.6, \theta : 79.6$$

韓國의 경우 國內貯蓄· 해외 저축· 輸出 및 公平한 소득분배가 經濟成長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韓國의 성장「패턴」이 勞動集約的 產業에서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전되었음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臺灣의 경우 輸出의 增加와 公平한 所得分配는 경제성장을 促進한데 비해 國內貯蓄· 해외 저축 및 經濟活動參加率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臺灣經濟가 자본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한 重化學工業 中心의 성장보다는 小規模 資本 中心의 成長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의 잉여가 컷음을 반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所得分配의 公平性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符誤가 個別分析과 통합분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統計的 信賴性이 낮기는 하지만 이러한 狀況으로 부터 同關係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分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과 멕시코에 대한 分析의 결과를 살펴보자.

$$G_t^{BM} = 16.134 + 0.506 \bar{L}_t + 0.223 S_t + 0.349 F_{st} + 0.043 E_t - 7.609 G_C$$

$$R^2 : 0.35, D-W : 1.59, F : 3.83, \theta : 613.1$$

$$G_t^{BM} = -23.47 + 0.506 \bar{L}_t + 0.221 S_t + 0.350 F_{st} + 0.045 E_t + 6.683 K_t$$

(t欲) (-1.153) (1.045) (1.074) (1.468) (1.143) (1.222)

$$R^2 : 0.35, D-W : 1.59, F : 3.84, \theta : 612.5$$

產業研究

- 브라질의 경우

$$G_t^B = -54.95 + 1.706 \bar{L}_t - 0.254 S_t + 0.043 F_{st} - 0.013 E_t - 9.389 G_C t$$

(t값) (-1.325) (2.029) (-0.615) (0.097) (-0.187) (-0.785)

$$R^2 : 0.47, D-W : 1.2, F : 2.67, \theta : 358.5$$

$$G_t^B = -60.91 + 1.639 \bar{L}_t - 0.28 S_t + 0.031 F_{st} - 0.013 E + 9.854 K_t$$

(t값) (-1.865) (1.999) (-0.697) (0.071) (-0.187) (1.002)

$$R^2 : 0.48, D-W : 1.26, F : 2.81, \theta : 349.8$$

- 멕시코의 경우

$$G_t^M = 26.097 - 0.367 \bar{L}_t - 0.366 S_t + 0.495 F_{st} + 0.061 E_t + 4.295 G_C t$$

(t값) (0.986) (-0.763) (-0.821) (1.442) (1.351) (0.378)

$$R^2 : 0.55, D-W : 1.87, F : 3.59, \theta : 112.16$$

$$G_t^M = 29.896 - 0.296 \bar{L}_t - 0.448 S_t + 0.509 F_{st} - 0.055 E - 6.830 K_t$$

(t값) (1.249) (-0.621) (-1.042) (1.516) (-1.201) (-0.725)

$$R^2 : 0.56, D-W : 1.9, F : 3.76, \theta : 109.4$$

위의 分析結果도 앞서의 韓國·臺灣과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 해야 할 점은 全體的인 경향의 파악이다. 즉, 보다 복잡한 經濟成長環境에 영향받음으로써 각 나라의 成長模型으로서는 本 模型이 부족하지만 主要 開途國에 있어서 소득분배구조의 經濟安定化 要因으로서의 역할은所得分配構造가 公平할 수록 經濟安定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종래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側面이 分析되고 유사한 結論을 제시하였다.²⁰⁾ 다만 소득분배구조의 경제성장에 대한 効果나 영향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模型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20) 제프리 D. 색스, “開途國의 外債管理를 위한 巨視經濟政策”, 『經濟計論시리즈』(87-02), 韓國經濟研究院, 1987.6

III. 要約과 결론

所得分配는 저축 경로와 社會安定經路를 통하여 外債와 성장에 影響을 줄 수 있는 것으로假定하고 韓國·臺灣·Brazil·Mexico 등을 相對로 계량분석과 彈力性分析을 시도해 보았다. 分析의 결과는 比較的 공평한 所得分配가 저축·外債·성장에 有利하게 作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比較的 공평한 所得分配가 저축을 增大 시키지 못하는 境遇(絕對貧困의 상태나, 消費風潮가 만연된 狀態)에도 比較的 공평한 所得分配는 사회안정을 通하여 직접적으로 外債減少와 경제성장의 持續에 기여한다.

그러나 對象國家가 4개국에 限定 되어 있고, 時係列도 21개 밖에 되지 못하여 위의 結果를 단정적으로 結論 짓기에는 無理가 따른다. 計量分析의 기법도 幼稚한 수준에서도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構造分析과 추세분석이 充分히 이루어 지지 못한 狀態에서 성급한 結論이나 일반화는 批判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課題는 대상국가 數를 늘리고, 그것을 그룹별로 統合 分析하고, 다시 結合하여 보다 精巧한 계량기법을 使用한다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結論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다一般的인 결론에 倒達하려면 構造analysis과 추세분석을 先行해야 할 것이다. 이 論文은 미숙 하나마 그러한一般的인 결론에 倒達할 수 있는 실마리를 提供 했다는데 意義를 찾을 수 있겠다. 即 國內貯蓄·외채·經濟成長에 대해서 絶對所得假說이나 Kuznets의 U字假說이 확고부동한 理論的 및 실증적 結論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에 이 論文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다.

參 考 文 獻

1. 郭相瓊, 計量經濟字(第二訂版), 茶山出版社, 1988.
2. 金光錫, 韓國家計의 貯蓄行態, 韓國開發研究院, 1975.
3. 金光錫, 朴埜鄉, 韓國經濟의 高度成長要因, 韓國開發研究院, 1979.
4. 金根東, 브라질 經濟와 企業進出環境, 產業研究院, 1983.
5. 金大模, “開放經濟에서의 所得分配의 經濟成長—1980年度의 韓國을 中心으로”, 中央大學校, 論文集, 제30집, 1986.
6. 金大模, 安國臣,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中央大學校, 1987.12.
7. 朴丙圭, 아르헨티나 經濟와 企業進出環境, 產業研究院, 1984.10

產業研究

8. 朴昇, 經濟發展論, 博英社, 1986.
9. 產業研究院 政策基調轉換期의 政策對應에 관한 事例研究—대안편, 1978.
10. 徐東赫, 칠레 經濟와 企業進出環境, 1982.
11. 이만우, 「한국과 대만의 產業構造와 所得分配」, 產業研究院, 1988.
12. 李賢宰, 經濟成長과 國民所得構造變動, 서울 大學校 出版部, 1972.
13. 李享純, 國民所得論—巨視經濟的 分析, 法文社, 1969.
14. _____, 新巨視經濟學, 法文社, 1983.
15. 鄭雲燦, 巨視經濟學, 茶山出版社, 1985.
16. 趙淳, 韓國經濟의 現實과 進路, 比峯出版社, 1981.
17. Choo, H., "Economi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over Time and By Secto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8.
18. 朱鶴中(編),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下), 韓國開發研究院, 1984 및 1987.
19. 韓國勞動組合總聯盟(編), 經濟發展과 所得分配, 1979.
20. 韓國銀行, "1980년대 政策基調의 變化와 經濟運營 實績", 주간내외 경제, 1985.2.2.
21. _____, "IMF의 世界經濟展望", 「주간내외 경제」, 1988.4.9.
22. Ahluwalia Montek S. Hollis B. Chenery, "The Economic Framework", in Redistribution with Growth, Joint Study by world Bank's Development Research Center and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at University of Sussex,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23. Ahluwaliz M. S.,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I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3*, 1976.
24. Baster Nancy, Distribution of Income and Economic Growth, UN Research Institutes, 1970.
25. Chenery H. B. and A. Strout,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tember 1966.
26. Chenery H. B.,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Of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74.
27. Chenery H. B., "Poverty and progress-choice for the developing world", *Financial & Development*, June 1980.
28. Duesenberry, J., "Income-consumption Relation and Their Implication", ed. M. G. Muller, (Holt Rinehart Winston), 1971, pp.61-76.
29. Furtado C.,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A Survey from colonial Times to Cuba Revolution, London, 1970.
30. Gupta K. L., "Foreign Capital Inflows, Dependency Burden and Savings Rate in Developing Countrie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KYKLOS 28*, 1975.

31. Gupta K. L. with Anisul Islam, Foreign Capital, Savings and Growth: An International Cross-Section Study, D. Reidel Publishing Company, Dordrecht, Netherlands, 1982.
32. Gupta Kanhaya L., Foreign capital, Income Inequality, Demographic pressure, savings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A Cross countries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Seoul, Chung-Ang University,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1984.
33. Gupta Kanhaya L., & M. Anisul Islam,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Some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Development*, 1985.
34. Harrod Lubell, "Effects of Redistribution of Income on consumer's Expenditure", Readings in Macroeconomics, ed. M. G. Muller, (Holt Rinehart Winston), 1971, pp.49-60.
35. Houthaker H. S., "On Some determinants of Savings in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E.A.G. Robinson (ed.), *Problems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Macmillan Company, 1965.
36. Keiser Norman F., Reading in Macroeconomics- Theory, evidence and policy, Prentice-Hall, Inc, 1970.
37. Keynes, J. 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Macmillan, 1936.
38. Klein, Lawrence, R., *The Keynesian Revolution*, Macmillan, 1966.
39. Kuznets Sa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40. Lecallion Jacques et. al.,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LD, 1984.
41. Lillien, David, M., [Micro-TSP] (Version 5. oh), Quaid Software Limited, 1987 . 1987.
42. Maddison Angus, Two Crise: Latin American and Asia 1929-38 & 1938-83, Development Cent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985.
43. Marchal Jean & Bernard Ducro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Macmillan, 1968.
44. McConnell Campbell R., Perspectives on Wage Determination, McGraw-Hill Book Company, 1970.
45. Meier Gerald M.,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4th),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46. Mizoguchi T. et. al., "Overtime Change of the Size Distribution of Household Income in Korea 1963-71", *The Developing Economics*, Vol. XIV, No. 3, 1976.
47. Modigliani F.,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s, the Demand for Wealth and the supply of Capital", Paper presented to the Rome Congress of the Econometric Society, 1965.
48. Muller M. G., Reading in Macroeconomics (2nd),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71.
49. Oshima H. T.,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ostwar Experience of Asian Countries", *Malayan Economic Review*, Vol. 15, No. 2, 1970.
50. Papanek G. F., "Aid, Foreign Private Investment, Savings and Growth in Less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 Jan-Feb. 1973.

產業研究

51. Pasinetti Luigi C., *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52. Renaud B.,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40, 1976.
53. Sacks, J.D., "開途國의 外債管理를 위한 巨視經濟政策", 經濟討論시리즈(87-02), 韓國經濟研究院, 1987. 6.
54. Stoneman C., "Foreig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World Development* 3, No. 1, January 1975.
55. Swamy S., "A Dynamic, Personal Savings Function and Its Long Run Implication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ruary 1968.
56. Theil, Henri, *Principles of Econometric*, John Wiley & Sons, Inc., 1971.
57. Toshiyuki Mozoguchi, "Concepts of Poverty in Various Stages of Economic Development in Asian Countries", *The Phillipine Economic Journal*, 1979.
58. Weisskopf T. E., "The Impact of Foreign Capital Inflow on Domestic Saving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2, No. 1, February 1972.

〈統計資料〉

1.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 1984-86.
2. 經濟企劃院, 韓國의 經濟指標, 1986. 3.
3.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6.
4.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도시가계연보, 1980-87.
5.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한국통계연감, 1987.
6. 國民銀行,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보고서, 1982-84.
7. 農林水產部·농가경제·농수산물생산비·양국소비량 조사 보고, 1981-87.
8. 財務部, 금융저축통계, 1987. 4.
9. 韓國銀行, 國民計定(1970-86), 1987.
10. 韓國銀行, 賯蓄部, 저축통장, 1983년 및 1988년.
11. The Central Bank of China, *Financial Statistics*, 1986.
12. ECLA, 라틴아메리카 경제조사, 1971.
13. Hongkong, *Economic Background*,
14. _____, *Economic Reporter*,
15. _____,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ILO, *World Development Report*, 1979-84.
16. _____, *Income Distribution Indicator*,
17.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
18. _____, *World Economic Outlook*,
19. _____, _____, 1984, 4 ~ 1988
20.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6.
_____, *World Debt Tables*,